

분류표에서 사용하는 보조표에 대한 연구

정 해 성*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보조표의 성격 | 참고문헌 |
| III. 보조표의 필요성 | Abstract |
| IV. 보조표의 종류 | |

I. 서 론

현대 자료분류표의 체계는 일반적으로 본표와 보조표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분류표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조표는 본표의 기호들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열거식 분류표이든 조합식분류표이든 현존하는 모든 주제를 본표에 모두 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표상에는 기본 주제와 이들의 하위주제들만을 열거해 놓고, 기본류나 하위류에 공통적으로 또는 특수한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별도의 표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들을 보조표라고 할 수 있다. 분류표에서 이들 보조표를 채택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분류표의 외형적 부피를 감소시키고 표의 조직을 단순, 간결하게 하여 분류표의 이해 및 기억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랑가나단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1969)이 제창한 “분류표는 동일한 개념이 표상의 어디에 나타나더라도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여 개념을 표현해야 한다”는 일정적 조기성(scheduled memorics)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연구자들의 정보에 대한 요구는 학문 영역 전체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학문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보다 훨씬 광범위한 새로운 지식이 생산됨으로써 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지식 체계 속에 통합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새로운 주제는 기존의 학문으로부터 분열되어 파생하는 것만이 아니고 기존의 특정 학문들이 통합되어 출현되기도 하므로, 개인이나 도서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지식이나 자료를 체계화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학문 분류의 체계나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분류표의 체계들은 모든 개념을 종속관계로 조직하려고 시도하고, 지식의 계층관계만을 표현하므로 지식에 포함된 개념간의 관계를 적절히 표시하지 못하고 학제적인 주제나 주제간의 상관관계의 변화도 수용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따라서 학문분류를 기초로 하고 있는 자료분류표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열거식 분류표의 전형으로 알려진 듀이십진분류표(이하 DDC로 약칭)도 제2판(1885)부터 여러 주제 아래 동일한 표현형식(form of presentation)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낭비적이라는 사실을 알고(Buchanan, 1979) 동일한 형식을 가진 개념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형식구분표(form divisions)를 마련하여, 어느 주제의 기호와도 조합할 수 있도록 하였고, ‘divide like’(현재의 Add note)의 방법을 사용하여 조합식 분류방식을 따르기 시작하였고, 17판(1965)에서는 지리구분(Dewey, 1965), 그리고 18판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의 보조표(Dewey, 1971)와 본표 안에 여러 가지의 합성지시(Add지시나 주기에 나타나는 지시)에 따라 기호를 조합하는 조합식의 구조적 요소를 많이 수용하여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개념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DDC 이후에 나온 국제십진분류표(이하 UDC로 약칭)나 브리스의 서지분류표(이하 BC로 약칭)도 보조표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의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가장 방대한 열거식 분류표인 미국의회도서관분류표(이하 LCC로 약칭)에도 기호를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보조표를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분류체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조표들을 구조적인 면에서 비교해 봄으로써 열거식 분류체계에서 사용하는 조합식의 방법을 검토하여 열거식 분류표도 지식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능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모든 분류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DDC와 UDC, 그리고 브리스의 서지분류표(이하 BC로 약칭)를 조합식 분류표를 대표하는 콜론분류표(이하 CC로 약칭)와 비교하였음을 밝혀둔다.

II. 보조표의 성격

자료분류표들이 사용하는 보조표에 대한 용어를 DDC와 LC에서는 Table, UDC에서는 Auxiliary Table, BC에서는 Auxiliary Schedule, 그리고 CC에서는 독립개념(Isolate Idea)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보조표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기술한다.

사공 철(1996)등은 보조표(Auxiliary schedule and Table)는 분류표에 추가되는 별도의 표로서 각 항목에 따라 다른 기호가 분류번호 다음에 추가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① 공통적이며 모든 분류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 DDC의 공통구분표
- ② 공통적이거나, 어떤 주제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 즉 Bliss의 서지분류표의 systematic & auxiliary schedules
- ③ LC 분류표에서와 같이 한 곳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
- ④ UDC에서 기본적인 국면에 적용되어 그의 의미를 분명히 해주는데 사용되는 2차적인 국면의 보조표와 특수한 기호에 의해 구분하는 것 또는 패킷 지시기호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Harrod(1995)는 체계보조표(Systematic auxiliary schedules)는 Bliss의 BC에 마련되어 있는 공통구분표로, 공통구분에는 형식구분, 지리구분, 언

어구분의 세 가지 보조표가 있으며, 이들 보조표는 분류표 전체에 적용되며, 이외의 특수 보조표는 몇 개의 주제 그룹이나 하나의 주제 또는 하위 주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들 보조표의 기호들은 해당되는 주제의 본표 기호와 합성되며 이러한 보조표는 UDC에도 나타난다고 정의하고 있다.

보조표가 분류표에 채택된 것은 DDC 2판(1885)에서 듀이가 처음으로 각 류들을 합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형식구분(form division)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듀이는 2판에서 형식구분, 지리구분 및 문학과 어학의 분야의 형식구분을 위해 사용하였고, 12판(1922)까지도 형식구분의 명칭을 사용하였고, 13판에는 다양한 공통 세구분, 관점, 그리고 형식구분의 세 가지 범주를 나타내는 공통세구분(common subdivisions)이라고 하고, 15판과 16판에는 다시 형식구분으로 사용하고, 17판에 와서는 표준구분(standard subdivision)라는 명칭을 사용한 보조표가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생산되는 문헌의 내용들이 학제적인 주제, 복합적인 주제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분석합성식 방법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됨에 따라서 본표 이외에 별도의 장치들 마련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분류표내에 개개의 주제가 열거되는 열거식 분류표로 시작된 DDC는 16판까지는 형식구분(form division), 17판에는 형식구분과 지역보조표(Areas table), 문학과 어학의 형식구분을 사용하다가 DDC가 18판 이후부터는 조합식의 성격을 갖고 조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7개의 보조표로 증가되었다. 이는 열거식 분류표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료의 동일한 형식, 관점, 국면 및 논제 등에는 본표 상의 일부 또는 전체에 동일한 의미로 합성 할 수 있는 조합식의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liss(1939, p. 45)는 자료에서 볼 수 있는 형식, 방법, 관계, 국면, 언어, 시대 지역 등의 개념들이 반복해서 재현될 때 이들에 대해 독립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복합적인 분류에서 들이나 그 이상의 특성을 합성시킴으로써 분류표의 편집, 인쇄 개정 및 이용자들의 사용이 경제적으로 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이 보조표들은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분류표의 모든 주제 또는 특정 주제나 그의 하위주제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되며, 이들의 기호들은 항상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일정하고 강력한 조기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개 분류표의 앞부분에서 볼 수 있다. (p.81-83)

보조표에 열거되어 있는 개념들은 지식의 전 분야나 대부분의 지식에서 동일한 방

식으로 나타나는 개념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주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반복시키는 것을 절약하는 경제성과 편리함을 목적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분류자의 재량에 의해 분류표내의 어느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조표는 본표 상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주제들을 질적으로 우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단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보조표의 기호들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Mills & Broughton, 1977)

Foskett(1996)는 보조표에 열거되어 있는 일반적인 패시들과 패시 지시기호들의 장치에 의해서 분류자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도 적합한 기호를 발견하고 부여하도록 해준다고 하고 있다.

Ⅲ. 보조표의 필요성

자료의 편리한 검색과 배열을 위한 서가분류의 방식은 1876년 듀이가 현존하는 자료의 내용(주제)에 따라 계층적으로 구분해 나가는 계층적인 분류시스템인 DDC 초판이 나오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Dewey의 분류체계가 나온 이후 여러 가지 분류체계들이 발표되었는데 이들을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열거식 분류체계(Enumerative scheme)와 조합식 분류체계(Faceted scheme, 또는 Analytico-Synthetic scheme)로(Ranganathan, 1967, Kumar, 1981.)로, 전자는 하나의 분류체계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주제들을 일정한 지식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하위류로 계속 구분하여 계층적 구조(hierarchical relation)를 표시해 주는 순서에 따라 일일이 열거해 놓은 것이고, 후자는 지식의 영역을 특정 구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몇 개의 요소주제(기본주제와 공통구분과 특수구분 등)로 분석한 다음, 얻어진 요소주제를 다시 일정한 공식으로 합성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Buchanan, 1977) 이는 열거식 체계가 지식을 일일이 열거함으로써 분류체계가 방대해지고, 자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제를 기호로 표시하기가 어

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Kumar, 1981.)

분류체계는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주제영역의 확산에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분류체계의 기본적인 구조를 심하게 어지럽히지 않고 편리하게 새로운 발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유연성있게 자료를 그룹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필모, 1991), 열거식 체계에서는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으므로 분류기호가 복잡해지고 자료가 나타내는 모든 주제를 기호로 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조합식 분류체계는 분류를 할 때 분류 담당자가 더 많은 사고를 해야하는 점은 있으나 (Buchanan, 1977) 열거식 분류체계들도 점차 조합식 체계에서 사용하는 조합원리를 사용하여 분류표의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Buchanan, 1977)

Needham(1971)은 콜론 분류표(Colon Classification : 이하 CC로 약칭)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류표들이 범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주제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들을 조합하는 방식이 제한되어 있어 불완전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열거된 내용이 불완전하고, 분류기호의 조합 방법도 제한되어 있고, 조합의 순서도 준수하지 않으며 본표에 나타나는 동일한 패킷안에서의 열거순서도 혼동되고 분명하지 못해 모든 주제(단순 주제, 복합주제, 합성주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합식 분류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랑가나단(Ranganathan, 1969)은 “도서관 분류의 대상 영역은 전 주제분야이다. 분류의 목적은 대다수의 독자들에게 유용한 직선적인 순서로 주제들을 배열하며, 각 주제를 고유한 서수에 의하여 표현함으로써 배열을 기계화하는 것이다. 주제분야들의 확충, 심층화, 증식은 대단한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1950년 이후 역동적 분류이론이 분류체계의 근거로서 개발되고 있다(정영미, 1997)고 한 바와 같이, 현대의 많은 분류체계들은 조합식의 방법을 채택하여 지식의 구조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열거식 분류체계들이 조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DDC 이후에 출현한 대부분의 분류표들은 여러 가지 보조표를 마련하여 개념을 자유롭게 조합하므로써 다양한 주제를 특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주제의 출현에 쉽게 대처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를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V. 보조표의 종류

현대 분류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조표의 종류에는 모든 주제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보조분류표(DDC의 경우)와 특수한 주제에만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보조분류표(LC의 경우와 DDC의 Table 3과 Table 4) 기본적인 국면에 적용되어 그의 의미를 분명히 해주는데 사용되는 2차적인 국면의 보조표(UDC)와 특수한 기호에 의해 구분하는 것(UDC) 또는 패시 지시기호를 말한다. 그리고 합성주제에서 볼 수 있는 상관계가 있다.

1. DDC의 보조표

DDC에는 여러 주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료의 물리적 형식(사전이나 정기간행물, 색인과 같은)이나 접근 방법(역사나 연구와 같은)에 대해서는 어느 주제나 학문분야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구분(Standards Subdivision : Table 1)이 있고, 특정 주제의 시대나 장소 그리고 인물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보조분류표인 지역, 시대, 인물 구분(Geographic Areas, Historical Periods, Persons : Table 2 : 이 보조분류표는 본표의 기호나 제1보조표의 몇가지 표준구분 가운데 어느 하나(09, 023, 0272, 0294, 0296, 0603-0609, 079, 025, 071)를 사용하여 추가되며, 본표의 기호에 직접 추가되기도 한다.) 그리고 문학류(800)과 예술의 일부분에 사용되는 예술, 개별문학, 특정문학형식구분(Subdivisions for the arts, for individual Literatures, for specific literary forms : Table 3)이 있는데 이 Table 3에는 개별 작가와 또는 개별 작가에 관한 저작구분(Subdivisions for Works by or about Individual Authors : Table 3-A), 복수 작가와 또는 복수 작가에 관한 저작구분(Subdivisions for Works by or about More than One Author : Table 3-B), 그리고 Table 3-B와 700.4, 791.2, 808, 809의 지시된 곳에 추가하여야 할 기호(Notation to be Added Where Instructed in Table 3-B, 700.4, 791.4, 808-809 : Table 3-C) 등 3개의 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810부터 890의 특정언어에 대한 기호 다음에 지시에 의해 사용하는 특수보조표이다. 그리고 어학류(400)의 420부터 490의 지정된 특정 언어나 어족에

대한 기호 다음에 지시에 따라 사용되는 각 언어 및 어족 구분(Subdivisions of Individual Languages and Language families : Table 4)이 있으며, 본표의 기호에 직접 추가하거나 Table 1의 -089를 사용하여 인종이나 민족 국가군으로 세분해 줄 수 있는 인종, 민족, 국가군 구분(Racial, Ethnic, National Groups : Table 5), 그리고 본표의 기호 490(때로는 Table 4의 기호가 추가되기도 함)의 특정 언어 기호를 구성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890(때로는 Table 3의 기호가 추가되기도 함)의 특정 문학의 기호를 구성하기 위해 마련되고 또한 특정 언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Table 2의 -175아래에서, 그리고 본표의 여러 곳에서 언어에 따라 세분하는데 사용되는 언어구분(Languages : Table 6), 본표와 보조표의 여러 곳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인물군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특정 직업의 사람들에 대한 주제의 취급을 나타내기 위해 Table 1의 -024에 추가되며, -088에 추가되어 특정 직업 집단이나 특정 종교 집단과 관련하여 어떤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추가되며, 또한 본표의 몇 곳에서는 종교집단이나 직업 집단에 의해 인물군을 나타내기 위해 본표의 기호에 추가되기도 하는 인물구분(Groups of Persons : Table 7)등 7개의 보조표가 있다. 이상의 7개의 보조분류표중 Table 1은 본표나 보조표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되어 있지 않는 한 어느 주제와도 합성할 수 있으며 나머지 보조표들은 본표와 보조표에 지시되어 있을 경우에만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주제 안에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부 보조표가 마련되어 있다. (Dewey, 1996)

2. UDC의 보조표

UDC에는 일차적 주제를 한정하는 이차적(보조적) 요소로서의 패시를 본표(특수보조주제)나 공통 보조표에 나열하여 해당 주제와 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보통 패시 지시기호라고 부르는 특수한 부호에 의해 식별되는데, 특수보조주제는 하이픈(-)과 .0을 사용하고 공통보조주제는 다른 부호들을 사용한다.

특수보조주제들은 본표에 해당되는 주제 아래에서 표시되기도 하고, 해당 주제의 다른 하위 주제에도 나타난다.

UDC는 언어, 형태, 장소, 인종/국적, 시간, 관점 등의 공통보조주제와, 개별 주제들

을 조합하기 위한 패시 지시기호를 사용한다. 패시 지시기호 + 와 / 는 하나의 문헌에서 다루어진 복합주제를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기호이며 관련된 두 개 이상의 주제를 조합하는데 : 과 [](관계부호)를 사용한다. 관련된 두 개 이상의 주제를 조합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특히 콜론(:)은 인용순서를 달리한 복수기입을 생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며 []는 복수기입을 요구하지 않는 종속적인 개념들을 위하여 사용된다.

3. BC의 보조표

BC의 본표는 기본적인 인용순서인 학문-현상의 순서를 채택하여 학문이나 하위학문에 해당하는 주제가 현상을 나타내는 주제 앞에 오게 했으며, 두 학문분야가 결합된 복합주제의 경우에는 탐구대상이 되는 학문을 탐구방법이 된 학문 앞에 놓고 있다. 그리고 본표의 각 주제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식구분, 사람, 장소, 언어, 민족, 시대구분의 6가지 체계적인 보조표(Systematic Auxiliary Schedule)를 마련해 놓고 있다.

4. CC의 보조표

CC에서 복합적인 주제들은 개념추출 단계(Idea Plane : 분류의 1단계)에서 이미 패시들로 분리한 후 각 개념들에 해당하는 분류기호를 패시 지시기호들을 사용하여 조합한다. 패시들은 다섯 개의 기본 범주, 즉 개체(personality), 소재(matter), 기능(energy), 공간(space), 시간(time) 가운데 하나에 속하게 되며 구체성 감소의 순서인 PMEST의 순서로 조합된다. 지시기호로는 , ; : . '의 부호를 사용한다. 특히 기본범주 중에 소재는 소재-물질, 소재-속성, 소재-방법의 세가지 중의 하나를 나타낸다.

CC의 독립개념(isolate idea: 이하 보조표의 의미로 사용)에는 공통 독립개념과 특수 독립개념, 선행 독립개념, 유사 독립개념이 있는데 특히 공통 독립개념들은 어떤 복합개념에서도 생기는 독립개념이며, 모든 주제나 많은 부분과 조합될 수 있다.

(Ranganathan, 1987)

특수 독립개념은 복합주제 안에서 볼 수 있는 개념으로 기본주제나 기본주제들과 관련된 그룹과 관련된 독립개념이다. 특수독립개념은 기본적인 범주 개체, 소재, 기능 범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각 주제의 하위주제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공통 독립개념과의 차이는 어떤 독립개념이 기본 주제의 P, M, E 패킷내에서 나타나는 독립개념인 경우와 공통 개체, 공통 소재, 공통 기능 개념의 표상에 열거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들 특수고립개념의 기호를 택하는 것이 다르다. (Ranganathan, 1987)

선행 독립개념은 연구자들이 각 주제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기 전에 연구주제에 관련된 자료의 리스트를 우선적으로 개관해 보기를 원할 때 이를 위해 서지, 백과사전, 각 주제의 역사와 같은 것을 정상적인 주제보다 우선적으로 배열하기 위해 마련되는 장치이다. 문헌의 체제(형식)을 위한 선행 독립개념은 전 주제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개개의 주제 안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행독립개념은 5개의 기본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은 아니다.(Ranganathan, 1987)

유사독립개념은 진정한 의미의 독립개념은 아니고 분류표에서 각 주제를 세분할 때 세분된 그룹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으로 세분된 그룹이 열거되는 부분 앞에 표현되어지는 개념들이다.

CC에서 사용하는 공통독립개념의 종류에는 언어독립개념 (language isolate idea), 시간 독립개념(Time Isolates), 공간독립개념(Space isolate idea), 선행 공통독립개념 (Anteriorising common isolate idea), 공통 개체 독립개념(common personality isolate idea), 공통 소재 독립개념(common matter isolate idea), 공통 기능 독립개념 (common energy isolate idea) 등이 있으며 각 주제에 해당하는 것들은 특수 고립개념(Special isolates)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상관계를 나타내는 보조표가 있다.

V. 보조표의 비교

1. 공통보조표와 특수보조표

랑가나단은 분류체계에서 각 주제를 나타내는데 개별적인 주제에 대한 체계는 일일이 나열하고, 이외에 복합주제나 합성주제를 표현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을 공통보조분류표(공통고립개념)과 특수보조분류(특수고립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UDC에서도 공통보조표와 특수보조표가 있으며, DDC의 경우는 표준구분과 Table 2가 공통보조표에 해당하며 Table3부터 Table7까지는 특수보조표에 속한다 이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공통구분	특수구분
DDC	Table 1. Standard subdivisions Table 2	Table 3. Subdivisions of Individual literatue Table 4. Subdivisions of Individual languages Table5 .Racial, ethnic national groups Table 6. Languages Table 7. Persons
UDC	Common auxiliary of languages Common auxiliary of form(of presentation) Common auxiliary of race & nationality Common auxiliary of time Common auxiliary of point of view Common auxiliary of materials Common auxiliary of persons	옆의 공통구분표의 language, race and nationality, point of view, materials and persons의 일부에 특수구분이 포함됨
CC	Time isolate 모두 Space isolate 모두 Energy isolate 대부분 Matter isolate 일부 Personality isolate 일부 Anteriorizing common isolate Posteriorizing common isolate	CC의 특수구분은 각 주제분야 안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본주제 외의 기능 패킷에 열거된 것을 그 예로 볼 수 있다.

2. 일반 형식구분

일반적으로 형식구분은 자료에 쓰여진 형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항상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번호를 가진다. 형식구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객관적인 형식구분은 수필, 서지, 정기간행물과 같이 쓰여진 형식에 따른 것이고, 주관적인 형식구분은 주제에 대한 이로, 철학, 역사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사공철, 1996) Harrod(1995)도 동일하게 정의를 하고 있다.

위의 정의에서 본 바와 같이 형식구분은 현대 분류표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DDC의 표준구분이 제2판(1885)부터 12판(1915)까지 형식구분(form division)이란 명칭으로 사용되고 13판에서는 공통세구분(common subdivision)으로, 15, 16판에서는 다시 형식구분으로, 그리고 17판부터 표준구분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각 주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료의 형식들과 개별 주제와 관련된 연구방법, 그리고 취급방법(역사적, 지리적, 이론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18판 이후에는 무한하게 확산되는 주제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구분표가 마련된 것이다.

DDC의 표준구분에 열거된 세목들은 DDC가 장점으로 내세우는 풍부한 조기성을 유지하며, 이에 따라 DDC의 주류의 종류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분할 경우에는 표준구분의 세목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최근 판에 와서는 세분되는 내용이 본래의 성격보다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DDC나 UDC의 경우는 세분 전개에 있어서 철저하게 심진식으로 계층구분을 함으로써 기호의 자리수가 무한히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조기성마저 모두 상실하게 되었으며, 문헌의 체계적이고 유용한 배열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정필모, 1995)

CC에서는 초판에서는 공통세구분표(common subdivision)를 마련하였으나(공간과 시간에 보조구분표와 함께) 5판에서는 공통독립개념(common isolates)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7판에서는 이 개념이 확장되었다(Kumar, 1981). 이에 따라 DDC나 UDC에서 볼 수 있는 일반 형식구분에 해당하는 개념들은 선행공통독립개념의 부분에 따라 마련하여 도서관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각 분류표에서 연속간행물을 위한 기호를 한 예로 비교해보면 DDC가 -05에 연속간행물로 한 항목만 마련하고 있는데 반하여 UDC는 매우 다양하게 전개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05)에 시간구분표를 사용하여 간행빈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문자구분을 통하여 간행물 명까지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초록 색인지(051), 연감(058), Almanac(059)로 세분하고 있는 것은 마치 체계적으로 표현되는 문헌의 내적인 유형을 그 범위나 수준 등에 걸쳐서 모두 형식구분을 해주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문헌의 내적인 유형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형식구분을 주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분류기호만 길어지고 복잡해 질 뿐이다. 따라서 분류담당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시키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정필모, 1995,)

CC의 경우에는 선행공통고립개념에 정기간행물은 m[P1] by (GD) : [P2] by (CD) 그리고 연속간행물은 n[P1] by (GD) : [P2] by (CD)의 공식으로 장소구분과 연대구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BC의 경우에는 3G Serials, periodicals(아래에 3GK Newspaper, 3GP Periodicals, 3GR Annuals), 3HI Yearbook, Almanac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BC의 경우에는 공통형식구분(2/3)에는 자료의 물리적 형태(AV자료, 비도서자료, 3차원 자료), 자료의 입수방법, 출판장소, 표현형식과 배열방법, 및 독자의 이용정도 까지도 세분하여 놓고 있어 사용이 매우 힘들다. 또한 공통주제구분 4/9에 세분된 내용은 개별 주제에서의 하위주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나열하고 있으며 4A(Persons in the subject)와 7(history), 8(place, localities in the subject)은 다른 보조표 (4는 보조표 1A와, 7은 보조표 4와, 8은 보조표 2와)와 결합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Mills & Broughton, 1977)

LCC의 경우에는 주류 내에서의 일반적인 배열원칙이라는 Martel의 일곱 가지 요점에 따라 한주제나 그의 하위주제 혹은 한 주제 내에서의 항목이나 세목을 전개할 때 다른 분류표에서 볼 수 있는 형식구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Martel의 7가지 요점은 1. General form division, 2. theory, philosophy, 3. History, 4. Treatises, General works, 5. Law, Regulation, State relations, 6 Study and teaching 7. Special subjects and subdivisions로 이들중 1부터 6까지는 개개의 주제를 구분할 때 해당 주제의 앞에 배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Chan, 1990)

3. 장소구분(지리구분)

장소구분은 어떤 한 주제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다루어 졌을 경우에 그 특정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도록 하는 장치로 각 분류표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장소에 대한 개념은 각 주제에 대하여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었거나 특정 지역의 역사에 대한 개념을 다룬 것으로 일반적인 지리적인 지역(대륙, 국가, 지방), 수면의 형태에 따른 지역(대양, 바다, 강), 자연 지리적인 형태(사막, 산), 및 인구분포에 따른 지역(시, 읍, 면 등)이 보조표에 포함되어 있다.

장소보조표는 모든 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보조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랭가나단의 공통고립개념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랑가나단(1967)은 장소의 배열 순서를 유용한 순서의 원리를 위해 공간적 인접순의 원칙으로 1)수직선상의 실체를 위한 원칙 (아래에서 위로의 원칙, 위에서 아래로의 원칙), 2) 수평선상의 실체를 위한 원칙(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원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원칙) 3)원형상의 실체를 위한 원칙 (시계 방향의 원칙, 시계 반대 방향의 원칙) 4) 방사선상의 실체를 위한 원칙(주변에서 중앙으로의 원칙, 중앙에서 주변으로의 원칙) 5)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의 원칙 등에 의해 배열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륙, 국가, 지방 등과 같은 사항은 지구 표면의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면상에 있기 때문에 그 인접 관계를 분명하게 결정 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각 분류표에서는 유용한 순서의 원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각 경우마다 적절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CC의 지역구분은 대륙별로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서인도제도 오세아니아 태평양 연안제도, 대양, 남극, 북극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기호 1은 세계적인 지역, 2는 그 도서관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역, 3은 자기 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보다 그 지역에 관한 장서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가까운 국가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기호이며 4부터는 대륙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의 하위류의 세분은 시계방향으로 동쪽에서 시작하여 북동쪽에서 끝나도록 순차적으로 공간 인접순의 원칙에 따라 세분하고 있으나 모든 지역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또한 대양에 연하는 국가군, 방위, 제국, 주제구분법에 따라 종교나 정치 등의 영향

권역 별로 구분하는 지리적 지역구분 다음에 세분하는 방법으로 복합주제 형성을 위한 특수한 보조표(Special components to form compound space isolate)를 마련하여 연결기호 =(등호)를 앞세워 기호의 합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DDC는 Table 2의 기호중 -01-05의 경우는 역사적인 시대구분이고, -2는 장소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한 항목이며 실제로 장소에 관련되는 항목은 -1과 -3-9이다. -1은 정치적인 단위 이외의 지형이나 기후와 같은 일반적인 성격을 기초한 지역구분이고, -3-9는 실제의 지역구분으로 -3은 고대 분명을 위한 지역구분이고 -4-9는 현대 국가를 위한 지역구분이다. 그러나 -4-9의 지역구분의 특성을 정치적, 행정적인 특징을 근거로 하는 구분은 랑가나단이 주장하는 영속성의 원리에 위배되지만(Kumar, 1979), 현실적으로 이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DDC에서는 -1에 정치적, 행정적 단위 이외의 기후 지역, 해양, 사회 경제적인 지역과 같은 일반적 성격에 기초한 지역구분을 배정한 것과 고대 사회의 지역구분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3-9의 기호들은 역사류의 930-990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Table 1의 -09(Historical, geographical, persons treatment)에서 -091(Treatment by areas, regions, places in general)과 -093-099 (Treatment 표 specific continents, countries, localities; extraterrestrial worlds)에서의 세분은 Table 2의 기호와 합성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UDC는 장소의 구분을 지형학적인 형태, 대륙, 대양, 그리고 극지의 성격에 따라(1) 일반적인 장소 (2) 지형학적인 부분 (3)은 고대의 지역 그리고 (4)부터 (8)까지는 일반 관습적인 방법으로 대륙에 따라 그리고 (91)에서 (99)까지는 대양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오스트라리아는 대륙으로 구분되지 않고 대양에 인접한 국가로 배정되었다. 각 대륙의 국가를 구분할 경우에는 관습적인 방법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아시아의 경우 동쪽에서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나 랑가나단의 공간적 인접순의 원칙에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용한 배열의 원리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UDC도 DDC와 마찬가지로 장소구분의 기호와 역사류의 세분되는 기호와는 철저하게 조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BC는 보조표 1의 "8"과 조합하여 사용되는데 기호는 숫자기호와 문자기호로 구성

된다. 숫자기호는 연관된 위치, 방향, 경도와 위도를 나타내며, 지형학적인 장소와 사회적 정치적인 부문의 장소가 A와 B에 해당되고 C에는 고대시대의 각 지역으로 구분하고, D/Z는 현대의 각국으로 세분하고 있다. D/F는 유럽, O/T는 아시아, U는 오스트랄리아, V는 아프리카, VW/WT는 대양, X는 아메리카, ZY는 외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 대륙의 국가에 대한 세분은 일정한 원칙이 없이 세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장소에 대한 보조표들은 조합을 하기보다는 열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분류표에서 가장 범위가 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 DDC 보조표 전체의 약 72%, BC의 경우는 68%, 그리고 UDC의 경우는 다른 공통보조표들과 별도로 보조표가 마련되어 있다.)

장소에 대한 개념은 정치적 행정적인 성격의 기초에서 마련되는데 이들 성격은 수시로 변화하므로 연속성의 원리를 지킬 수가 없다. DDC와 UDC에서 고대 국가에 대한 기호를 별도로 마련할 것은 이 원리를 지키기 위한 한 방법이며, 지역구분을 위한 보조표의 내용은 수시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4. 시대구분

시대구분은 어떤 주제가 특정 시대에 한해서 다루어 졌을 경우에 표시해 주는 구분으로 모든 주제에 적용할 수 있는 패킷이다.

시대에 대한 개념을 분류에 처음 채용한 것은 Ranganathan이 CC에 적용한 이후에 DDC와 UDC 그리고 다른 분류표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CC에서는 연대구분(Chronological device)으로 사용하다가 6판 이후부터는 시간 고립개념(Time isolate)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Ranganathan, 1987)

CC의 시대구분은 알파벳 소문자에 의해서는 기후별 특정 시기구분으로 바람, 온도 및 습도에 따른 시기를 구분하고 있으며 아라비아 숫자로는 일년간의 시기를 월력과 태양력에 따른 시기를 하루의 시간대별, 요일별, 주별, 월별, 계절별 시기로 세분하고 있다. 그리고 알파벳 대문자로는 기원 전 9999년부터 현대까지 시대구분을 하고, 7판에서는 연대의 범위를 역화살표를 사용하여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Ranganathan, 1987)

DDC는 표준구분의 -0901-0905에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구분을 하고 있는데 12세기까지는 서기 연대를 무원칙하게 전개하고, 13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100년을 단위로, 20세기는 10년을 단위로 1999년까지 전개하고 21세기는 2019년까지만 전개하고 있다. 또한 중세(-0902), 근대(-0903), 20세기(-0904), 21세기(-0905)를 대단위로 구분하고 있다. 20세기를 10년 단위로 구분한 것은 도서관의 장서 수를 고려해서 마련된 것으로 보이나 특정 연대의 기호화가 어려운 점이 있다. (Dewey, 1996)

DDC의 시대구분표는 여러 주제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으나, 문학(800), 어학(400)의 일부분, 그리고 예술분야의 일부분, 그리고 역사(900)류에서는 위의 구분표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시대구분 기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UDC는 “ ”안에 해당되는 연, 월, 일, 시까지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구분을 하기가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DDC와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시대구분 이외에 문학, 어학, 예술, 역사에 별도의 시대구분이 마련되어 있어 일관성이 없다.

BC는 시대구분을 위해 마련된 보조표가 3가지가 있다. 장서수에 관계없이 정확하게 시대순으로 배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표준시대구분(보조표 4A), 간략하게 시대를 열거한 포괄적인 시대구분(보조표 4B) 그리고 역사의 시대적인 개념을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세분류용 시대구분(보조표 4C)가 있다. 또한 4A와 4C에는 시작 연대 그리고 연대 범위를 나타낼 수 있는 별도의 표들이 마련되어 있다.

위의 각 분류표에서 보던 BC의 경우에는 시대구분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 사용하기가 불편하며, CC의 경우에는 서기 연대를 알파벳 문자와 숫자를 사용하므로 시간의 패시 지시기호를 사용하지만 기호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DDC는 전개되어 있는 기호에 따라 조합을 하므로 조합된 기호가 시대를 나타내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분류에서 사용되는 보조기호들은 자료의 서가상 배열이나 서지나 목록류의 배열을 위하여 분류자가 일정한 방법으로 매겨 놓은 것이지 이용자들에게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5. 언어구분

언어구분이란 개별 국어, 개별 문학 및 기타 주제에 있어서 언어 구분이 필요한 부분에 적용하도록 세계의 주요 언어를 계통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체계에 따라 기호를 부여하여 만들어진 보조표이다.

일반적으로 본표에서 어학이나 문학을 세분하는 경우에는 언어에 의해 전개하고 있는데 언어구분을 위한 보조표는 어학이나 문학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언어의 세분을 위해 마련된 표라고 할 수 있다. DDC는 초판부터 언어구분에 의해 어학과 문학이 전개된 것을 볼 수 있는데 18판에 와서 별도의 보조표를 마련하게 되었고, UDC에서도 이를 받아들였으며, CC 7판에서는 language isolate라는 이름으로 전개 사용하고 있다.

CC에서는 1-3, 99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개하고 있으나 4-8에 대해서는 대륙을 나타내는 기호에 지역구분 기호를 첨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세분된 어족의 언어명을 더하기(+) 기호 다음에 문자구분을 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복합 언어를 위해서는 등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언어가 사용된 기간을 나타내는 패시 지시기호로 x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DDC와 UDC의 경우 2-8까지에 전개된 항목 수 보다 기타 언어(9)에 전개된 항목 수가 많아 기호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분류표가 서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타 제국어의 분류기호의 자리수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길어지는 불균형상태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CC의 경우 서구의 주요 언어는 언어체계에 따라 전개하고 기타 제국어는 지역에 따라 전개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으며 동일계의 언어가 인접해서 모아지지 않고 분산되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이용에 불편을 주게 될 가능성이 많다(정필모, 1996).

6. 인종, 민족, 국가군 구분

인종, 민족, 국가군 구분은 주제가 특정한 인종, 민족, 국가군에 한정되어 다루어진 경우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조표로 인종이나 민족 그리고 국가군은 그들

이 태어난 장소, 또는 현재 살고 있는 장소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문화권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각 항목의 전개가 언어구분과 장소구분에 근거하여 전개해 놓고 있다.

DDC는 언어구분에 기초하여 전개하고 있으며, UDC에서는 (=1.2/.9)는 지역구분표(Table I(e))의 기호를 사용하여 조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2/=9)는 언어구분(Table I(c))의 기호를 사용하여 조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표상에 전개되어 있는 항목수도 26항목에 불과하다. BC의 경우도 인종구분은 본표의 인류학에 근거하여 전개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권역인 C/E는 장소구분표(보조표 2)의 기호와 합성하도록 하고 있고, G/Y는 언어권에 의해 전개하도록 하고 있어 표의 분량도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2 page에 불과하다. CC의 경우는 별도의 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본표의 SY 사회심리학(Social psychology)에 [1P]수준에 인종별, 국적별, 언어별, 문화권별, 피부색 등으로 전개하여 놓고 있다.

7. 인물구분

인물구분은 주제가 특정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나 사람들에 한정되었거나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다루어 졌을 경우이들 특정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표이다.

DDC는 18판부터 별도의 보조표로 만들어 진 것으로 성별, 연령별, 사회계층, 비직업적인 속성에 의한 구분을 -01-09에 전개하고 -1.9에는 직업이나 취미로서 특정 주제, 활동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 전개하였다. 따라서 -1.9의 세분 항목은 본표의 100-900의 배열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DDC에는 이 보조표 이외에 표준구분의 -081-086에 별도로 성별, 연령별, 가족관계, 사회계층, 경제 상황 등에 따른 간략한 구분이 되어 있고 또한 Table 3-C의 -928에도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전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UDC는 3(사회과학), 658.3(인사관리), 616(임상의학)에 세분되어 있던 것을 공통보조표로 만들어 해당되는 주제와 조합하도록 한 것이다. 이 보조표의 기호들은 .05를 선행하여 2는 사용자와의 관계, 근무조건, 보수, 3은 연령, 4는 국적, 인종별, 5는 성

별, 6은 육체적 정신적 소질이나 상태, 7은 직업 능력이나 직위, 8은 사회계급, 가족 관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BC는 보조표 1의 기호 4를 선행시켜 표상에 전개되어 있는 문자와 결합하여 사용되는데 사회학(K)과 사회복지(QK)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전개시켜 놓고 있으며 CC는 별도의 공통구분이 없이 SY(사회심리학)와 TUS 교육심리학(Educational psychology)에 전개되어 있는 기호를 사용하여 인물구분을 할 수 있다.

8. 문자구분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데 가장 편리한 요소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름을 그대로 기호로 사용하면 편리하다는 관점에서 UDC와 CC에서는 문자구분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CC에서는 Alphabet device에 의해서 전 주제분야에서 세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며 특히 문학 작품의 작가명, 기계의 상표, 파수나 바이러스 그리고 박테리아 등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을 기호에 포함시켜 개별화 시켜주며, UDC는 Table I(h) Alphabetic and numeric subdivision을 마련하여 문자구분을 하고 있다. UDC는 본표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별 자료에 대한 세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 개별 자료를 개별적으로 구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들의 명칭 전부나 생략형을 알파벳 문자를 사용하여 구분하며 번호로 식별 될 수 있는 것들은 번호를 부여하여 개별화 시켜주고 있다. DDC에서도 문학이나 어학의 경우에 자국 우선주의를 택하고자 할 경우에 문자를 사용한다.

9. 상관계

상관계란 합성주제 내에서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분류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랑가나단은 전체 주제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관계를 불완전한 결합(loose assemblage)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기본주제와 복합주제간의 상호관계를 표현하는 의미로 상(phas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불완전한 결합이란

두 개 이상의 주제(기본주제 또는 복합주제)가 결합된 것이거나 두 개 이상의 독립개념(동일 패킷 내 이거나 동일한 어레이 안에서)이 결합된 주제를 의미한다.

CC는 상 관계의 수준을 주제간(inter-subject) 상 관계, 패킷내(intra-facet) 상 관계, 그리고 개념 배열내(intra-array) 상 관계 (하나의 동일한 개념 배열 안에 있는 두 개념간의 관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관계의 표시는 지시기호 &(ampersand)와 상 관계의 종류에 해당하는 영어 소문자 한자를 사용하며 일반관계, 편향관계, 비교관계, 차이관계, 도구관계, 영향관계 등의 6가지가 있다. .

BC는 CC에서의 주제간의 상관계의 경우와 유사하며 공통구분(Auxiliary schedule 1)에 전개되어 있는 기호중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C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관계의 종류는 비교관계, 영향관계, 일반관계, 편향관계 등의 상관계를 사용할 수 있다.

DDC는 단일 학문의 관점에서 한 주제의 다수 측면이나 둘 이상의 주제를 다루고 있을 경우와 둘 이상의 학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Dewey, 1996)

- 1) 상호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저작은 영향을 받고 있는 주제와 함께 분류한다. (rule of application)
- 2) 두 주제에 관한 저작은 더 완전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에 분류한다.
- 3) 두 주제가 동등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서로에 대한 소개나 설명이 없을 경우에는 본표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주제로 분류한다. (first of two rule) 그러나 첫 번째 기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주기가 되어 있다.
- 4) 셋 이상의 주제에 관한 저작은 이를 모두 포함하는 첫번째 상위 기호로 분류한다. (rule of three)
- 5) 기호법의 계층구조에서 동일한 위치에 0과 1-9의 선택권이 있을 경우에는 0으로 시작되는 세목은 피한다. (rule of zero)

그리고 둘 이상의 학문분야에 대해서는 본표나 상관색인에 학제적 주제에 대한 기호가 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고, 기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완전하게 다룬 학문 분야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상관계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판 이후부터로 보이며

21권의 표준구분 -024(The subject for persons in specific occupation), -08 (History and description with respect to kinds of persons) 등을 예로 볼 수 있다.

UDC의 경우 부가기호(+ 와 /), 상관기호(: [] ::)는 상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특히 상관기호들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주제가 상호 관련되고 있을 때 즉, 서로 영향, 작용, 원인, 결과, 용도, 수단, 비교, 대조 등의 관계가 있을 때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이 상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각 분류표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조분류표들이 있다. DDC는 개별 문학의 형식구분(Table 3)과 개별 국어의 형식구분(Table 4)이 있으며, UDC는 Table I(g)에 Common auxiliary of point of view(관점)보조표가 있으며 Table I(k)에 재료에 대한 보조표 (-03을 사용), 그리고 CC는 개체, 기능 소재에 대한 공통구분표가 있으나 이에 대한 것은 5장의 내용으로 대신한다.

VI. 결 론

본 연구는 DDC, UDC, BC, CC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조표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 보고 각 분류표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식구분, 장소구분, 시대구분, 언어구분, 인종,민족, 국가구분, 인물구분, 문자구분 및 복합주제를 표현하는 상관계에 대한 것을 비교하였다.

CC를 제외한 다른 분류표들은 본표의 체계가 지식을 일일이 계층에 따라 열거해 놓으므로 표의 규모가 방대하고,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발전하는 주제영역에 대하여 분류체계의 기본적인 구조를 어지럽히지 않고 편리하게 새로운 발전에 대응할 수 없으며, 유연성있게 자료를 그룹화 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CC에서 사용하고 있는 패시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의 보조표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 이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조표의 종류에는 어떠한 주제와도 조합할 수 있는 공통 보조표와 특수한 주제에

만 한정시켜 사용할 수 특수보조표가 있다.

DDC와 UDC의 형식구분 보조표는 가능한 한 조기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BC의 경우에는 1/3까지는 공통 형식구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4/9에 세분된 내용은 개별주제의 하위개념을 열거하여 놓고, 특히 4, 7, 8의 경우는 다른 보조표(인물, 시대, 장소)를 안내하는 지시기호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소구분은 개개의 장소가 열거되어야 하므로 보조표중 범위가 큰 것이 특징이다. DDC와 UDC는 장소의 개념이 정치적 행정적인 성격을 반영하므로 영속성의 원리를 유지하기 위해 고대 국가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대구분은 BC, UDC, CC의 경우는 패시 지시기호를 사용하여 시대 패시가 기호 상에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DDC의 경우는 기존의 기호와 바로 조합을 하므로 시대의 의미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언어구분은 일반적으로 분류표를 만든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기타 제국어의 경우 기호의 길이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인종 민족 국가군 구분은 언어구분과 조기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CC의 경우에는 별도의 표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며, 인물구분은 DDC와 UDC만 전개하여 놓고 BC와 CC는 관련되는 학문분야에 전개되어 있는 기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복합주제내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분류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상관계를 CC와 BC에서는 사용하고 있으며 UDC는 부가기호를 가지고 이를 표현하며 DDC는기호를 조합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보조표에 대한 개괄적인 비교만 수행하였으므로 조합식 분류 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가 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앞으로 본표와 관련하여 개개의 보조표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될 예정임을 밝혀 둔다.

참 고 문 헌

- 김태수(1987) “콜론분류법에서의 상(相)관계,” *情報管理學會誌*. 제4권 제2호. p. 47-61
- 南台祐(1991) LCC, CC, DDC의 語文學區分에 관한 研究. - 미간본 박사학위논문. -
서울 : 中央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 사공철 등편(1996)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李昌洙(1992) 歷史 및 地理類에 대한 組合式分類表의 展開. - 미간본 박사학위논문. -
서울 : 中央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 정영미(1997) 지식구조론. -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현대정보관리학총서 ; 28)
- 鄭馥模(1991) 文獻分類論. - 서울 : 九美貿易. 出版部 - (현대정보관리학총서 ; 15)
- 鄭馥模(1995) 國際百進分類法研究. - 서울 : 中央大學校 出版部
- Bliss, Henry Evelyn (1939).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in Libraries*. - 2nd ed. -
New York : H. W. Wilson
- Buchanan, B. (1979). *Theory of Library Classification*. - London : Clive Bingley
- _____ (1989). 문헌분류이론. - 정필모, 오동근 공역. - 서울 : 구미무역
- Chan, Lois Mai (1990). *Immroth's Guide to the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
4th ed. - Englewood, Co. : Libraries Unlimited
- Dewey, Melvil (1965).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 17th ed.
Lake Placid, N.Y. : Forest Press. - 2 vols
- Dewey, Melvil (1971).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 18th ed.
Lake Placid, N.Y. : Forest Press. - 2 vols
- Dewey, Melvil (1979).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 19th ed.
/edited under direction of Benjamin A. Custer. - Albany, N.Y. : Forest
Press. - 3 vols
- Dewey, Melvil (1989).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 20th ed.
/Edited by John P. Comaromi, Julian Beall, Winton E. Matthews, Jr. and
Gregory R New. - Albany, Placid, N.Y. : Forest Press. - 4 vols
- Dewey, Melvil (1996).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 21th ed.
/Edited by Joan S. Mitchell, Julian Beall, Winton E. Matthews, Jr. and

- Gregory R New. - Albany, Placid, N.Y. : Forest Press. - 4 vols
- Foskett, A. C. (1996). *The Subject Approach to Information*. - 5th ed. - London :
Library Association
- Iyer, Hemalata (1995). *Classificatory Structures ; Concepts, Rel*
kfurt : Indekx Verlag
- Kumar, Krishan (1979). *Theory of Classification*. - 2nd rev. ed. - New Delhi : Vikas
Publishing House
- Mills, J. and Broughton, V. (1977-). *Bliss Bibliographic Classification, Vol.1.*
Introduction and Auxiliary Schedules; Other Classes. - London : Butterworth
- Ranganathan, S., R. (1987). *Colon Classification*. - 7th ed. - Bangalore : Sarada
Ranganathan Endowment for Library Science
- _____ (1960). *Colon Classification*. - 6th ed. completely rev. - New York :
Asia Publishing
- _____ (1967)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 3rd ed. - New York :
Asia Publishing House
- _____ (1969). "Colon classification , edition 7. a Preview", *Library Science*
with a Slant to Documentation, 6.
- Satija, M. P. (1989) . *Colon Classification, 7th edition : a Practical Introduction*. - New
York : Ess Ess Publication

A Study of Auxiliary Schedules in Classification

Chung, Hae-Su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ompare of the structure of auxiliary schedules using in DDC, UDC, CC and BC.

Auxiliary schedule which are appended to schedule of all schemes of classification. They consist of items of form of presentation, relationship, time, place, languages, racial, ethnic, national groups and persons and phase relation and the symbols of the different items can be added to classification numbers.

* Professor, Catholic University of Taegu Hyosung